머레이 주립대(Murray State University)

교환학생 파견후기

정보통계학과

박 나린

1. 주거 및 생활

저는 머레이 주립대학교에 들어가기 전, 기숙사 신청을 하고 가서 on campus에 있는 White College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가격은 한 학기에 약 3000불 정도입니다. 만약 1년을 계신다면 방학때는 따로 돈을 내고 살거나 아니면 방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College Court 같은 rent 형태의 숙소를 등록하고 사는 것이 저렴하고 더 유용합니다. 저는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해 기숙사를 썼지만, College Court를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숙사에도 주방이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자주 먹기는 힘들며 방에 룸메이트가 가져온 냉장고가 없으면 재료 보관도 어려워 식비지출이 많았습니다. (College Court나 Station 74 같은 곳을 렌트를 하시면 식비도 아낄 수 있으므로 가기 전에 Off Campus를 꼭 고려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처에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곳으로는 학교 안에 Winslow, 스타벅스, Einstein Bagel, market22, Fast track(편의점), Chick-fill-A, Thoroughbred room이 있고 Flex 카드 (학생증 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lex카드로 학교내에 음식점에서 결제를 할 경우 tax가 붙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는 cook out, 맥도날드, Jasmin, Apple bee...등 다양한 식당들이 있지만 패스트 푸드점을 제외하고는 세금포함 팁을 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Murray는 Christian belly에 속해있는 곳으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고 학교 안에도 기독교 단체들도 많습니다. 단체에서 종종 국제학생들을 위해 많은 행사를 해주니 참가하시면 친구도 만들고 처음 적응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없는 학생들이 교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 돈

일단 가기위해서 비자신청 및 국제학생 신청하는 비용+비행기 값, 학교 가서 600\$상당의 학교에 내야하는 돈 및 학생 보험비 기숙사비 ot비용 등등 처음에 드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것은 비용을 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게 챙기지 마시고 넉넉하게 챙기세요. 한달에 저는 50-60만원정도 쓴 것 같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mint 모바일을 사용하여 6개월에 60\$에 싸게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식비였고 초반에 책값 제외하고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미국 물가가 손을 거치면 모두 돈이 비싸지기 때문에 사먹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다면 만들어 먹는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교 내에서 알바하는 것은 J1비자로 가능하지만 학교 내에 일자리는 잘 나지 않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기전에 미리 지원해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있을 예정이라면 미리 지원하거나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은행은 CFSB와 BB&T 은행 두 곳이 대표적이며 OT 하실 때 은행에서 직접 오셔서 둘 중에 선

택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은행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CFSB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있는 ATM기기가 모두 CFSB 것 이여서 수수료가 없다는 점 계좌 해지가 비교적 빠르다는 점이 있지만 학교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해서 한번 은행 업무를 보러 가려면 택시를 타지 않으면 걸어가기 매우 힘듭니다. 또한 머레이는 인도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차도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BB&T는 학교 내부는 아니지만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돈을 뽑거나 하려면 거기까지 가서 뽑아야하고 은행 계좌 해지도 CFSB 보다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은행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은행 같은 경우는, 제 주변 한인 친구들은 시티은행을 가져오는 친구도 있었는데, 돈을 뽑고 이체하는데 OTP 문제가 있어서 현지 은행으로 계좌 송금을 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은행을 통해서 현지 은행으로 송금했고 미리 주계좌 은행에 가서 이런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출국하였습니다. 돈 문제는 특히 중요하니 가기 전에 미리 은행에 상담하고 방법을 여러 가지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교통

머레이는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 없는 곳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듯 , 학생들 모두 면허가 있어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을 때, 한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를 렌트하여 내슈빌과 같은 도시에 다녀온다던지 외국인 친구들과 동행 또는 택시비를 내고 다녀오기도 합니다. 택시비가 짠 편은 아닙니다. (처음오실 때, 내슈빌 공항에서 머레이를 올 때는 international office에서 셔틀버스를 75\$ 내면 데려다 줍니다.)

4. 후기

저는 가을학기 한 학기만 공부하다가 온 것이여서 1년 살던 분들처럼 많은 것을 보고 느끼진 못하였지만, 한 번쯤은 해볼 만 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레이 주립대는 국제학생들에게는 교통수단도 없어 굉장히 고립되어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이나 많은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학교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굉장히 안전한 도시이고 학교가 중심이 되는 도시답게 학생들에게 친절합니다. 공부와 외국인 친구 사귀는 것이 목적이라면 알맞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